

호매칼럼



류준식 시인·작사가

입금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보다 총칼로 다스리던 일제식민지시대에는 잠으로 서슬이 시퍼랄던 때였다.

언제 누군가의 모함으로 불똥이 튀어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시대에 일본 총독의 말은 법이요 죽음이였다.

그 시절에 일본 총독이 산책을 하면서 아들에게 물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때 아들은 서슴지 않고 아버지를 말했다.

그러나 총독은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네가 존경해야 할 너희 선생님이라 하며 나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너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실 분이시다. 그러니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최선을 다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

이 될 것"이라며 훈계하였다는 일화가 생각난다.

그렇다. 담임 선생님만큼 그 학생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 학생의 가정환경과 문화수준 지적수준과 의식수준 성격과 생활 습관 학습능력과 학습정도 소질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예견은 물론 지도방향에 따른 고견은 담임 말고 누구에게서 듣는단 말인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을 존경하고 따를 때 그분은 나에게 좋은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존경에서 받아드려지는 것이다. 존경과 믿음이 없을 때 감격과 감동이 없으며 수고는 했으나 거름이 없을 것이다.

스승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콩으

로 메주를 쏠 때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존경이 있을 때는 팔로 메주를 쏠 때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선생님이 부르시면 '저요.' 하고 달려오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면 '왜요'하고 노려보며 고등학생이 되면 '뭐요.' 하고 대어든다는 말이 있다.

조금 비약된 말이겠지만 이것은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이며 많이 가르치고도 실패한 우리 교육의 총체적 실패가 아닌가 싶어 서글픈 생각이 든다.

존경하지 않는 분의 가르침은 잔소리에 불과한 공염불이다. 서로에게 불행한 만남이며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뿐이다.

"내 자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선생님을 존경하는 책이라도 하라."는 어느 분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러나 존경할 수 없는 부덕한 선생

님을 존경하기는 잠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내 자녀가 잘되기를 바란다면 존경하는 책이라도 해야 한다.

그것은 부모님의 교양이요. 인격인 동시에 외길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의 단점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수준 높은 부모님.

선생님이 부족할수록 그 부모는 더욱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훌륭한 분이셨다"고

만일 자녀와 함께 "노그 선생.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생겼더라."고 입맞춤하며 선생님 권위를 깎아내려 얻어질 것이 무엇이겠는가?

먼 훗날 자식으로부터 '우리 어머니는 참 무식했어' 라는 커다란 불명예 훈장을 받게 될 때 동시에 공부할, 자식농사 망치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존경할 스승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지상에서 나를 위하여, 내 자녀가 출세하여 금의환향하는 가슴 벅찬 그 날을 위하여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잘 못 봤거나 아니면 아마 무슨 뜻이 있을 거야"라고 하거나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 "너 착한 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이렇게 따끔하게 꾸지람을 주어야 할 것이다.

선생님을 존경함, 이것은 바로 내가 잘되며, 내 자녀를 잘되게 하는 최고 최선의 길이요 방법이다.

스승은 비전 있는 가르침과 사랑을 주고 학생은 스승을 믿고 따르며 우러러 존경하는 아름다운 교육현장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부동산 전세 사기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김창희 /극성경찰서 경부계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는 2017년도 74억 원에서 2021년도에는 5790억 원으로 4년 동안 78배 증가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 대표적인 매물은 실거래가 보다 높은 전세가, 강릉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기로 부동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천한다.

해당 상품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공사에서 집주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상품으로 보증(합) 상품이다 보니, 가입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도 많으니, 지원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둘째 등기부 등본을 여러 번 확인한다. 해당 매물의 시세는 얼마인지, 저당은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전세 계약 시, 잔금 납입 전, 잔금 납입 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근저당 외에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납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으므로

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신중히 여러 번에 걸쳐

확인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화재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 이렇게



이정철 /보성소방서 별교119안전센터

한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12월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에 갖는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모두 들떠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설레고 기쁜 일만 있어야 할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안전사고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겨울철 화재 발생현황에 대한 분석을 들여다보면 화재의 발생 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나 안전사고가 많이 집중되어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적 사고를 미리 예측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 소방서 및 유관 기관의 예방활동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다. 그렇다면 화재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과 이용자는 화재 예방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관계인은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상구를 잠가 두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유사시 피난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비상구와 피난 안내도를 확인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중

요하다.

둘째 화기 취급에 대한 위험 의식을 갖도록 한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촛불, 폭죽 등 화기 취급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트리장식을 위한 소형전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미흡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안전 불감증과 같이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결국은 화재 안전사고의 시작이 된다.

사고에는 단계가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개개인의 안전의식으로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재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Subscrip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website, and pricing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amboo forest background, slogan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